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 내용분석을 통한
정의로운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콘텐츠
현황 연구

심 연 수 (Shim, Yeon-soo) *

(E-mail : shimys@honam.ac.kr)

논문접수일 : 2009년 1월 15 일

논문심사일 : 2009년 1월 19 일

게재확정일 : 2009년 2월 21 일

* 학위취득대학 : 서울대학교

현직: 호남대학교 교수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 내용분석을 통한 정의로운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콘텐츠 현황 연구*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정의원리에 바탕을 둔 정의로운 정치콘텐츠 모형을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의 내용에 적용 분석하여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시민의 정의원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지역구별, 성별, 당선회수, 정당별 등의 차이점은 없는 지를 알아보았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어떤 정의원리를 갖고 쌍방 소통을 하고자 하는 가를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에서 노출된 내용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회의원들은 대체적으로 평균지향적인 정의원리를 추구하고 있었고 민주정치발전에서 보다 요구되는 정의감 덕목의 하나인 양보지향적인 정의원리는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정의로운 시민성 함양을 위하여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내용에서 양보지향적인 정의원리를 추구하는 정치콘텐츠 개발이 요구되며 나아가 시민들과 쌍방향적인 대화를 통해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성찰적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형성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제어] 시민성, 홈페이지, 정의원리, 국회의원, 평등, 평균, 양보

* 본 연구는 2006년도 호남대 학술연구비지원을 받아 연구된 결과임.

I. 서론

최근에 이르러 발달된 정보통신기술(ICTs)과 국회의원 홈페이지¹⁾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정치적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홈페이지의 사이버 토론공간을 통한 시민 상호간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증대 및 후원회비 모금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Blog 혹은 Web log)를 통한 정치적 견해 피력 확대와 시민의 댓글 증대 및 여론 선점 노력 증대 등을 통한 정책 홍보 및 현안 이슈 지지와 이슈의 선점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사이버공간상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사이버 폴(poll), 여론 조사 발표 등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국회의원들이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각종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경향도 확대되고 있다. 나아가 국회의원들이 선거 캠페인 및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이버공간을 활용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참여로 인하여 한국정치문화를 보다 성숙시켜 줄 수 있고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콘텐츠의 개발과 시민들로 하여금 정의로운 정치참여를 하게끔 유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민은 보다 한 단계 높은 시민으로 나아가야 하겠고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는 관리자나 운영자 그리고 시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정의사회실현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정치콘텐츠를 개발 관리 운영해 나가야 한다. 사이버공간에서 형성되는 여론이 정치발전과 정치문화에 기여하는 방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시민과 현실시민이 올바르게 정의로운 정치적 행위를 사이버 상에서 할 수 있는 정치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²⁾

1) 국회의원 수는 16대까지는 273명 이었지만 17대부터 26명을 늘려서 현재 18대까지 299명으로 늘어났으나 2009년 2월 현재 18대 국회의원 295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근 정치관련 홈페이지는 질과 내용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분석하는 합의된 명확한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치콘텐츠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보고 정치관련 홈페이지 중에서 제일 홍보가 잘되어 있는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다양한 콘텐츠를 분석해 본다. 그리하여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다양한 정치콘텐츠가 갖고 있는 정의롭지 못한 측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의로운 콘텐츠 모형³⁾을 제시하여 18대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내용을 분석해 본다. 정의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는 자연히 사이버 시민들로 하여금 정의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결국 한국 정치의 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IMF 구제 금융을 전후해서 국가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한국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국민의식에 있어서 정체성(identity)의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였다. 이런 정체성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고 또 합의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사회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합의정신을 통하여 우리시대의 바람직하고 지속적인 정의원리를 발견하고 나아가서 이런 정의원리에 대한 교육적인 노력을 강구하여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의 지배적인 '정의감(the sense of justice)'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체성 확립에 매우 중요하다.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비롯한 정치관련 홈페이지에서 이런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정의감을 배양하는 교육적 노력이 들어가 있는 정치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정치를 주도해 나가는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

2) 네티즌은 단순히 사이버 공간에 참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비해, 사이버 시민은 사이버 공간에서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시민으로서의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3) 간략히 <그림 1>로 표시한다.

상의 정치콘텐츠의 형식과 내용을 복지국가의 정의원리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여 그 특징을 도출하고 복지국가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치콘텐츠를 개선하여 사이버 공간속의 한국정치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들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어떠한 정의원리에 바탕을 두는가는 정치문화개선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을 잡느냐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평등주의적 정의원리, 평균적인 중산층에 바탕을 두는 정의원리, 타협과 조화에 바탕을 두어 상대방에 최대한 양보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정의원리 중에서 어디에 역점을 두어서 사이버 시민들과 소통하는 가는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정의감 확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정의원리에 바탕을 둔 정의로운 정치콘텐츠 모형을 18대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의 내용분석에 적용하여 국회의원들이 추구하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바람직한 시민의 정의원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지역구별, 성별, 당선회수, 정당별 등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사이버 공간상의 시민들과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떤 정의감을 갖고자 하려는 가를 연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분야의 연구결과는 미흡한 실정인데,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검색어로 국회도서관의 자료를 찾았을 때 문헌은 단행본 12권, 학위논문 5건, 학술지 9건인데 학술지도 학술저널에 발표된 것은 5건에 불과했다.⁴⁾ 먼저 김용호 외(2005)는 16대,17대 국회의원 홈페이지 보유실태를 비교분석하였는데, 기존의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면서 미래의 민주주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제공형 전자민주주의, 국민투표형 전자민주주의, 토론 및 숙의(심의)형 전자민주주의, 다원적 공동체형 전자민주주의의 4가지 유형의

4) 검색일:2008년 12월 30일

전자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김춘식(2000)은 국회의원 홈페이지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정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수렴이 미약하다고 하였다. 박재창(2004)은 우리사회가 입법과정에서 ICTs를 활용하는 정도의 수준을 다루었고 목진휴 외(2006)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양극화 자료가 있는 홈페이지 수는 전체의 51%이었으며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기하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은 소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마저 질적 측면도 낮고 다만 포럼,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양극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분석하고 있다.

윤성이 외(2002)는 국회의원의 사이버 의정 활동 현황 및 인식을 조사 분석하고 있는데 주로 국회의원 홈페이지 관리 현황, 사이버 의정 활동의 현황과 인식, 사이버 선거 운동의 현황과 인식, 사이버 정치에 대한 사이버 시민과 국회의원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사이버 정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지은(2003)은 국회의원 홈페이지가 기존의 TV나 신문이 하고 있는 정치인의 정책과 정치성향전달에 그치고 있고 인터넷이 갖는 쌍방향성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개인적 정보전달 및 유권자와의 의사소통이 미흡하여 PR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김용호 외(2002)는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관리방식과 사이버 의정활동의 현황을 연구하면서 주로 국회의원들이 홈페이지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의정활동홍보(57.6%), 국민여론수렴(15.2%), 지역구여론수렴(25.8%), 사이버지동원(1.5%)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정상현(2000)은 인터넷을 통해 시민참여의 정도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분석하여 숙의민주주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정소나(2006)는 정치인들이 자기표현전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였는데, 17대 국회의원들은 자기표현에 있어서 역량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남성은 능력과 관련된 문제를 표현하기를 선호하는 반면 여성은 대안적이고 사회정서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남이·이미숙(2001)은 국회의원의 홈페이지 보유 유무의 특성과 영향요인분석, 홈페이지 접속자수와 영향요인 분석, 홈페이지의 상의 토론/게시판 글 수와 정책 자료 제공 수에 대한 분석, 홈페이지 내용 구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 내용구성을 분석해 볼 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목적이 국민이나 유권자들과의 의사소통이나 대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에로의 참여 통로나 정보제공 보다는 국회의원 자신의 홍보나 선전, 후원회 모집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데니스와 마르크(W. Dennis와 D. Mark, 1997)는 정치인의 홈페이지의 기능에 대해서 첫째,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유권자들과 의사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시대추세에 부응한다는 상징기능, 둘째, 후보자의 긍정적 정보와 상대후보의 부정적 정보 및 이데올로기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 셋째, 인터넷상에 익명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유권자여론수렴기능, 넷째, 인터넷활용으로 호의적인 유권자를 확인하고 유대 강화하는 기능으로 나누고 있다.

이들 연구 외에도 많은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관한 분석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특히 선거전후에 연구 분석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와 관련된 홈페이지의 정치콘텐츠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는 심연수(2004, 2005)외에는 거의 없다. 특히 정치콘텐츠의 내용을 분석해서 콘텐츠의 내용이 어떤 정의원리에 바탕을 둔 내용으로 시민들에 얼마나 많은 빈도수로 접근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 분석은 전무하였으며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정당별, 지역별, 성별, 위원회별, 당선회수별, 비례대표 등으로 카테고리화해서

홈페이지에서 담고 있는 정치콘텐츠의 특징을 카테고리별로 분석한 선행연구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II.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연구방법은 일종의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으로서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그 대상으로 한다.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다음의 유형별 분류기준에 따라서 재구성하였다.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지역별, 정당별, 위원회별, 비례대표와 선출직별, 성별, 의원선출회수별 등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정치 콘텐츠를 분류하였다.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구성된 정치콘텐츠 유형을 크게 지식전달의 콘텐츠, 지적 기능(技能)을 다루고 있는 콘텐츠, 정의(情意)적 영역에 호소하고자 하는 콘텐츠로 나눠서 분류하고 개별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의 그 비중을 비교분석하였다.⁵⁾

각종 정치관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시민들에게 정의적 영역에 호소하고자 하고 있는 콘텐츠는 궁극적으로는 사이버 공간속에서 시민의 가치(value)와 태도(attitudes) 변화를 바꾸려는 의도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사이버 공간속에서 시민은 정치콘텐츠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가치와 태도를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정치세계에서 사람들의 가치와 태도는 구체적인 정치행동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사이버 시민은 정치콘텐츠를 통해서 타인의 정책가치와 태도에 대한 비교를 하고 정당화의 검증단계를 거쳐서 구체적인 정치행동으로 나아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시민에 전달하고자 하는 정치 콘텐츠의 세 영역을 기준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비교

5) 정치콘텐츠도 의도적인 홍보·교육적 목표를 갖는다는 점에서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의 <표 1>처럼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표 1>의 A, B, C와 같은 각각의 셀(cell)에 관련 홈페이지의 전체 콘텐츠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할 수 있고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콘텐츠의 구성 비율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표 1> 정치관련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기준

비교분석의 척도 정치관련 사이트	사이버 시민에 전달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영역								
	지식 전달 콘텐츠 (A)			지적 기능에 기반을 둔 콘텐츠(B)			정의적 영역에 호소하고자 하는 콘텐츠(C)		
	평 등	평 균	양 보	평등	평균	양보	평등	평균	양보
국회의원 1									
국회의원 2	.			.			.		
...									
국회의원 295	.			.			.		

다음으로 이런 비교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복지국가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중심적인 정의원리(심연수 1998)에 바탕을 둔 덕목이면서 사이버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인 평균, 평등, 양보 덕목을 조합하였다(그림 1).⁶⁾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들은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정의로운 정치콘텐츠에 접근하여 쌍방 소통함으로써 정의로운 선진복지국가 구현에 보다 접근해 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정치콘텐츠를 평등, 평균, 양보라는 정의감의 덕목을

6) 우리 사회가 보다 강조해 나가야 할 정의원리에 바탕을 둔 정의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즉 복지국가에서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의 원리로서 롤즈의 '최소극대화'적 정의원리, 하사니의 '평균극대화'적 정의원리, 그리고 고티에의 '최대상대양보극대화'적 정의원리를 제시하고 검토하면서, 이들 정의원리로부터 정의롭지 못한 사고와 행동 그리고 사회를 평가하는 내적 기준으로서 '평등' '평균' '양보'라는 덕목을 도출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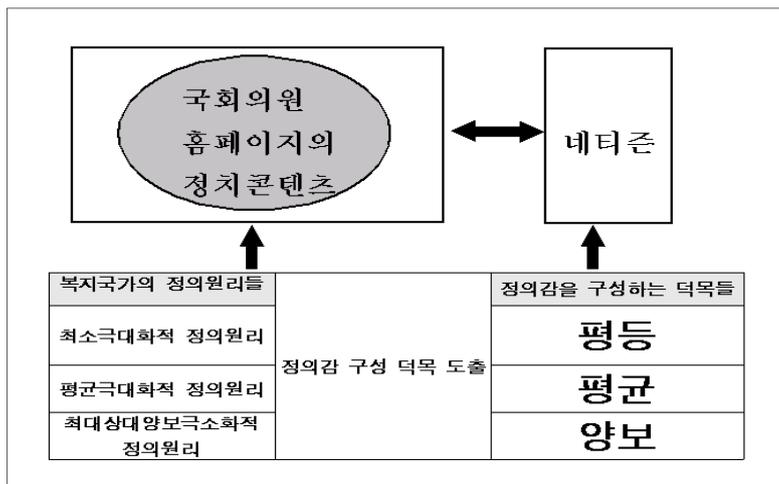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사회의 지도자로서 홈페이지의 정치콘텐츠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사이버 시민들의 평등, 평균, 양보라는 정의감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어느 덕목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지 검토한다.

분석에 있어서 척도는 있음(0)과 없음(1)의 2단계 척도를 사용했다.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의와 정의원리 개념을 별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아 정치인들은 이들의 대표라는 객관적인 평가에 근거하였다.

하지만 시민들의 지도자로서 시민들의 정의감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고 정의로운 정치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기인하였다. 따라서 정의원리가 개별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있는지를 분석하여 그 척도를 없음(0), 있음(1)으로 구분하였다. 물론 보다 엄격한 정성적인 평가를 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며 다음 후속 연구에서 행하기로 한다.

<그림 1> 정의로운 정치콘텐츠 모형:

분석에서 사용된 사이버 공간상에서 시민들에 요구되는 덕목



위의 <표 1>에서 나타난 각각의 셀(cell)에 국회의원 홈페이지 내용에서 나타난 빈도수를 제시분석하고 평균값을 구하였다. 그리고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구분한 카테고리, 즉 출신지역별, 비례대표, 소속 정당별, 당선 회수별, 성별 등의 카테고리 별로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어느 카테고리나 어떤 국회의원 홈페이지가 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의로운 정치콘텐츠를 갖고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치콘텐츠를 제시해 보면서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정의원리를 위해서 보다 개선해야 할 점들을 찾고자 하였다.⁷⁾

<표 2> 분석대상 교섭단체 현황: 국회홈페이지 참조

교섭단체별 의석수 현황(2009년 2월 14일 현재)					
교섭단체/선거구		지역구	비례대표	계	비고(%)
교섭 단체	한나라당	149	22	171	57.97
	민주당	67	15	82	27.80
	선진과 창조의 모임	15	5	20	6.78
비교 섭단 체	친박연대	0	8	8	2.71
	민주노동당	2	3	5	1.69
	창조한국당	0	1	1	0.34
	무소속	8	0	8	2.71
		241	54	295	100

7) 복지국가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중심적인 정의원리를 말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심연수, 『복지국가와 정의』, 서울:인간사랑, 1998.

Ⅲ. 분석결과

전체 국회의원 295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단순한 내용의 지식과 사실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전체의 46%이었고 다음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현안 이슈 등과 같은 쟁점과 법안 등의 입법 과정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인 측면을 알리려는 의도가 33%이었으며 다음으로 감정에 호소하여 의도된 내용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21%로 나타났다.

2009년 현재 국회의 교섭단체별 구성인원은 무소속 8명, 민노당 5명, 민주당 82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0명, 창조 한국당 1명, 친박연대 8명, 한나라당 1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교섭단체별, 지역구별, 성별, 당선회수 별로 홈페이지의 내용구성 비율을 살펴본 결과 해당 내용빈도수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의 <표 3>, <표 4>과 같았다.

<표 3> 18대 국회의원 홈페이지 내용분석결과(%)

비교분석의 척도 정치관련 사이트	사이버 시민에 전달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영역								
	지식 전달 콘텐츠 (A)			지적 기능에 기반을 둔 콘텐츠(B)			정의적 영역에 호소하고자 하는 콘텐츠(C)		
	평 등	평 균	양 보	평 등	평 균	양 보	평 등	평 균	양 보
전체합계	273(46%)			201(33%)			125(21%)		

단순지식과 사실의 전달의 콘텐츠를 우선시하는 교섭단체별 순위를 보면, 무소속(50%), 한나라당(47%), 선진과 창조의 모임(45%), 민주당(43%), 친박연대(40%), 창조한국당(34%), 민노당(30%)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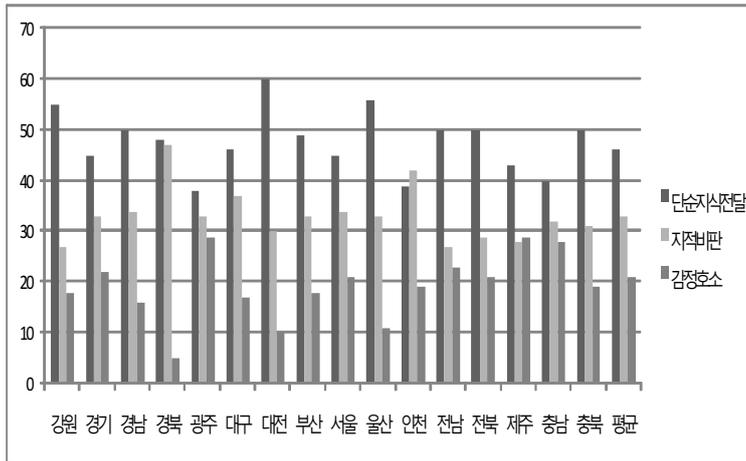
<표 4> 18대 국회의원 홈페이지 내용분석결과(콘텐츠 비중)

교섭단체 /지역구/성/당선수	비교분석 척도		단순사실 지식전달		지적 비관		감정 호소	
	합계 (비중)		척도 합	전체 비중 %	척도 합	전체 비중 %	척도 합	전체 비중 %
무소속			8	50	3	19	5	31
민노당			3	30	3	30	4	40
민주당			77	43	59	33	42	24
선진과 창조의 모임			20	45	14	32	10	23
창조한국당			1	34	1	33	1	33
친박연대			4	40	3	30	3	30
한나라당			160	47	118	35	60	18
합계/평균%			273	46	201	33	125	21
지역구(241명)			235	46	172	34	103	20
비례대표(54명)			38	43	29	32	22	25
강원			6	55	3	27	2	18
경기			54	45	39	33	26	22
경남			19	50	13	34	6	16
경북			9	48	9	47	1	5
광주			9	38	8	33	7	29
대구			11	46	9	37	4	17
대전			6	60	3	30	1	10
부산			19	49	13	33	7	18
서울			48	45	36	34	23	21
울산			5	56	3	33	1	11
인천			10	39	11	42	5	19
전남			11	50	6	27	5	23
전북			7	50	4	29	3	21
제주			3	43	2	28	2	29
충남			10	40	8	32	7	28
충북			8	50	5	31	3	19
남(254명)			236	46	174	34	106	20
여(41명)			37	45	27	32	19	23
초선			117	45	90	35	53	20
2선			85	46	62	33	40	21
3선			42	45	32	34	19	21
4선이상			28	48	17	29	13	23

지적 분석과 비판적 기능을 우선시하는 콘텐츠를 중시하는 순위는 한나라당(35%), 민주당(33%), 창조한국당(33%), 선진과 창조의 모임(32%), 친박연대(30%), 민노당(30%), 무소속(19%) 순이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의 감정에 호소하려는 콘텐츠를 강조하는 교섭단체의 순위는 민노당(40%), 창조한국당(33%), 무소속(31%), 친박연대(30%), 민주당(24%), 선진과 창조의 모임(23%), 한나라당(18%) 순이었다.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를 성별로 비교분석해 보았을 때, 여성 국회의원은 남성 국회의원에 비해서 정서에 호소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남성 국회의원은 상대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 비판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리고 초선에 비해서 4선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단순 사실과 지식전달을 하는 경향이 강했고 감정과 정서에 호소하려는 경향 또한 강했다.

<그림 2> 지역구별 비교표(콘텐츠 비중)



하지만 의원 선수와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단순사실과 지식전달의 수단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차분석

을 통해서 볼 때, 초선인 남자 국회의원들은 비교적 감정에 호소하기 보다는 지적 분석과 비판을 통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구의원들은 비례대표의원들에 비해서 감정보다는 논리적으로 의정활동을 분석하고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단순지식과 사실 전달을 전달하려는 경향이 강한 국회의원들은 울산(56%), 대전(60%), 강원(55%)을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들이었고 이들은 국회의원들 전체 평균(46%)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홈페이지에서 지적 분석과 비판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인천(42%), 대구(37%), 경북(47%)을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들이었는데 이들 국회의원들은 전체 평균(33%)을 상회하였고 전남(27%), 전북(29%), 제주(28%) 지역 국회의원들은 평균이하를 나타내었다. 한편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들의 감정과 정서에 호소를 하려는 경향은 충남(28%), 제주(29%), 광주(29%)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경우에 강했는데, 울산(11%), 대전(10%), 경북(5%), 경남(16%)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감정과 정서에 호소를 하려는 경향이 평균(21%)이하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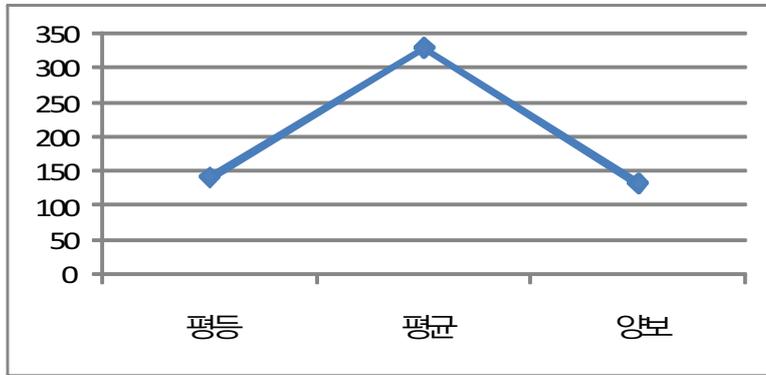
국회의원들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종 사회적인 이슈와 정책방향에 있어서 정의원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빈도누적수치를 보면 평등 140, 평균 328, 양보 131 이었다. 국회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중산층이나 중간계층의 입장에 서서 사회적인 이슈와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5%). 또한 상대적으로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재분배과정과 사회적 삶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입장에서 사회적 이슈와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비율은 23%로 나타났고 양보 덕목에 비중을 두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하려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는 비율은 22% 정도였다.

<표 5> 18대 국회의원 홈페이지 내용 중 차지하는 정의 원리 비중

비교분석 척도 합계 (비중) 정의	단순사실 지식전달						지적비판						감정호소						
	척도합			전체비 중%			척도합			전체비 중%			척도합			전체비 중%			
	평 등	평 균	양 보	평 등	평 균	양 보	평 등	평 균	양 보	평 등	평 균	양 보	평 등	평 균	양 보	평 등	평 균	양 보	
교섭단체 지역구 성/당선수																			
무소속	5	3	0	63	37	0	0	1	2	0	33	67	0	2	3	0	40	60	
민노당	2	1	0	67	33	0	1	1	1	33	33	33	2	1	1	50	25	25	
민주당	29	48	0	37	63	0	11	28	20	18	49	33	4	21	17	9	51	40	
선진과창조의 모임	9	9	2	45	45	10	2	7	5	14	50	36	1	5	4	10	50	40	
창조한국당	1	0	0	100	0	0	0	0	1	0	0	100	0	0	1	0	0	100	
친박연대	1	3	0	25	75	0	1	1	1	33	33	33	1	2	0	33	67	0	
한나라당	47	99	14	30	62	8	17	66	35	14	56	30	6	30	24	10	50	40	
합계/평균%	94	163	16	34	60	6	32	104	65	16	52	32	14	61	50	11	49	40	
지역구 (241명)	77	123	15	37	57	6	23	95	54	14	55	31	10	53	40	11	51	38	
비례대표 (54명)	17	20	1	46	52	2	9	9	11	31	31	38	4	8	10	19	36	45	
강원	5	1	0	83	17	0	0	2	1	0	67	33	0	0	2	0	0	100	
경기	16	33	5	30	61	9	7	22	10	19	56	25	5	11	10	19	43	38	
경남	8	11	0	42	58	0	3	10	0	24	76	0	1	4	1	17	66	17	
경북	4	4	1	44	44	12	1	4	4	12	44	44	0	0	1	0	0	100	
광주	5	4	0	56	44	0	2	4	2	25	50	25	2	3	2	28	44	28	
대구	3	8	0	28	72	0	1	5	3	11	55	34	0	2	2	0	50	50	
대전	1	4	1	17	66	17	0	1	2	0	33	67	0	0	1	0	0	100	
부산	2	15	2	11	78	11	0	7	6	0	53	47	0	5	2	0	72	28	
서울	11	33	4	23	69	8	4	23	9	11	64	25	1	17	5	5	73	22	
울산	3	2	0	60	40	0	0	2	1	0	67	33	0	0	1	0	0	100	
인천	2	7	1	20	70	10	1	4	6	9	36	55	0	1	4	0	20	80	
전남	5	6	0	45	55	0	0	1	5	0	17	83	0	1	4	0	20	80	
전북	2	5	0	28	72	0	1	2	1	25	50	25	0	2	1	0	67	33	
제주	0	3	0	0	100	0	0	2	0	0	100	0	0	2	0	0	100	0	
충남	6	3	1	60	30	10	2	3	3	25	37.5	37.5	1	4	2	14	58	28	
충북	4	4	0	50	50	0	1	3	1	20	60	20	0	1	2	0	33	67	
남(254명)	83	138	15	36	58	6	26	90	58	14	51	35	11	49	46	9	47	44	
여(41명)	11	25	1	21	67	2	6	14	7	24	51	25	3	12	4	16	63	21	
초선	48	63	7	41	53	6	21	42	27	23	46	31	6	25	22	11	46	43	
2선	26	54	5	31	63	6	6	39	17	11	62	27	7	20	13	17	50	33	
3선	13	27	2	32	64	4	4	15	13	12	46	42	1	8	10	6	42	52	
4선이상	7	19	2	25	68	7	1	8	8	6	47	47	0	8	5	0	71	59	

다음으로 정당별 비교분석을 해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중산층이나 중간계층의 입장에 서서 사회적인 이슈와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소속 정당 순을 보면 친박연대(58%), 한나라당(56%), 민주당(5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나타난 정의원리 빈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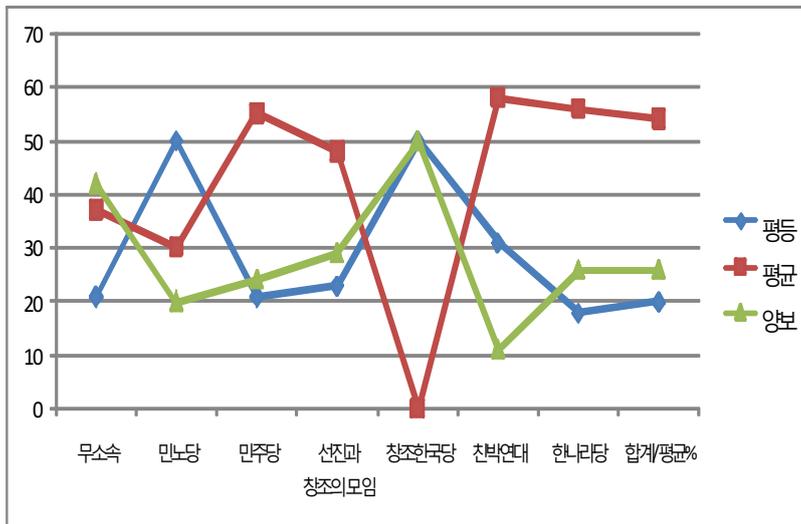


또한 상대적으로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재분배과정과 사회적 삶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입장에서 사회적 이슈와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소속 정당순을 보면, 평균 20% 인데 무소속(21%), 민주당(21%), 선진과 창조의 모임(23%), 친박연대(31%), 창조한국당(50%), 민노당(50%) 순으로 강했다.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은 정당별로서는 가장 약한 비율(18%)을 차지했다. 양보 덕목에 비중을 두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하려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는 비율이 강한 순서는 평균 26% 인데, 선진과 창조의 모임(29%), 무소속(42%), 창조한국당(50%)로 강했고 상대적으로 친박연대(11%), 민노당(20%), 민주당(24%), 한나라당(26%)은 양보 덕목에 대한 비중이 약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 지역구별 비교분석을 해보았을 때, 대체적으

로 중산층이나 중간계층의 입장에 서서 사회적인 이슈와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소속 지역구 순서와 경향을 보면 지역구의 평균은 48%인데 제주, 서울,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경기, 충북 순으로 강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재분배과정과 사회적 삶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입장에서 사회적 이슈와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소속 지역구 경향을 보면, 지역구 평균은 32%인데 충남(33%)과 광주(36%)가 강했다. 양보 덕목에 비중을 두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하려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는 비율이 강한 순서는 평균 22%인데, 대전, 전남, 경북, 인천, 울산, 강원, 부산, 충북, 대구, 충남, 경기 순으로 강했고 상대적으로 전북, 서울, 광주, 경남, 제주도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는 양보 덕목에 대한 내용 비중이 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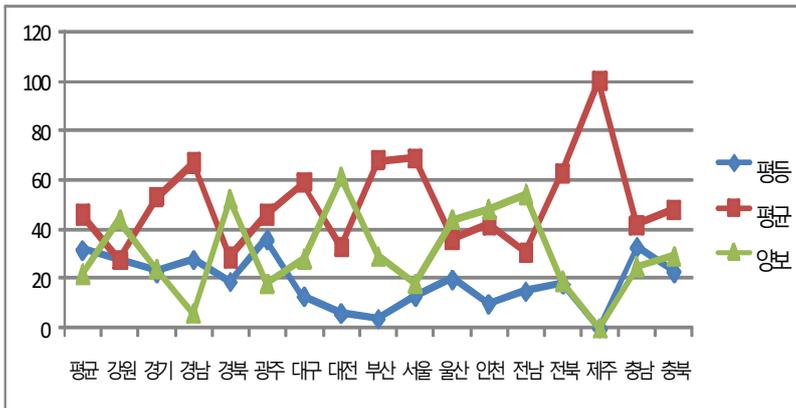
<그림 4> 정당별 정의원리 노출 빈도비교



국회의원들의 성별비교를 해보면 여자(60%)는 남자(52%)에 비

해서 대체적으로 중산층이나 중간계층의 입장에 서서 사회적인 이슈와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비율이 강했다. 반대로 남자(28%)는 여자(16%)에 비해서 양보 덕목에 비중을 두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하려는 입장이 보다 높았다.

<그림 5> 지역구별 정의원리 노출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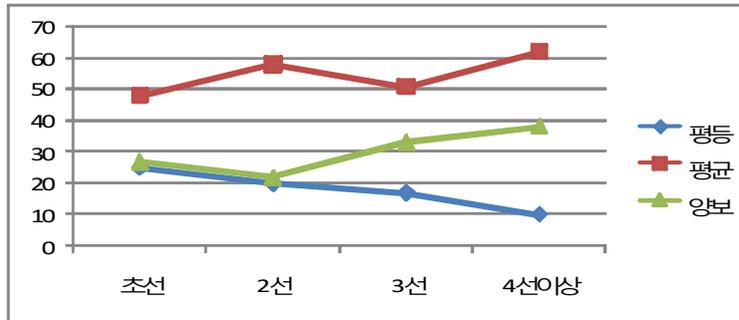


당선 회수와 관련지어서 분석해 보았을 때, 당선회수가 늘어날 수록 대체적으로 양보 덕목에 비중을 두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하려는 입장이 높아지면서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재분배과정과 사회적 삶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입장에서 사회적 이슈와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비교분석해 보았을 때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평균주의에 입각하여 대체적으로 중산층이나 중간계층의 입장에 서서 사회적인 이슈와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비율(평균 46%)이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비율(평균 40%)보다 높았고 반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경우에

는 양보 덕목에 비중을 두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하려는 입장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강했다(비례대표 평균 28%, 지역구 평균 22%).

<그림 6> 당선회수별 정의원리 노출 비중 비교



IV. 결론

지금까지 분석을 통해서 보았을 때, 18대 국회의원들은 홈페이지의 내용구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대체적으로 평균주의적인 정의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회수, 정당, 지역구 및 성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었지만 국회의원들이 소속하고 있는 정당의 이념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경우에는 민노당에 비해서 보수적인 측면으로 나타나서 평균주의적 정의원리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사이버 공간상에서 시민들과의 쌍방향 대화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공고화와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는 사회적 갈등해결모색을 위해서 보다 타협적이

고 조화적인 측면에서 양보에 바탕을 둔 정의원리를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국회의원 홈페이지 내용 분석을 통해서 볼 때, 홈페이지의 내용은 객관적이지 않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 홈페이지 내용구성은 보다 교육적인 문제에서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콘텐츠내용분석이 시사해주는 점은 민주주의발전과 참여정치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사이버 공간에서 최근 한국 정치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는 포퓰리즘⁸⁾을 극복해야 한다.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도 여론이 여과되지 않은 채 정치과정에 투입되어 중우민주주의 혹은 포퓰리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기존의 법과 제도를 소홀히 하고 인기영합을 핵심으로 하는 포퓰리즘은 민주정치의 근본을 해칠 수 있다. 성찰적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가 되기 위해서는 참여민주주의를 앞세워 모든 권위와 학력 그리고 전문가 정신을 파괴하는 다중의 힘에 의한 중우정치를 지양하고, 사려 깊은 고찰을 통해 사회적 공동선이 무엇인지를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 모색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회의원들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정보화의 진전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연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문화의 확산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과 손쉬운 정보 획득을 가능하게 하여 대중의 정치적 자각과 의사표현을 강화하지만 대의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시키고 있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선전 선동을 벗어나서 타인과의 조화와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보덕목이 홈페이지에서 보다

8) 민중인기영합주의로 불린다.

노출되는 것이 필요하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타협과 양보의 미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이버 시민들의 인터넷 정치참여는 참여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즉 쌍방향적 대화와 토론을 법제도화 하는 차원에서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시민의식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이루어 시민 개개인의 삶의 복지와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오관석 2008, 90)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홈페이지의 다양한 정치콘텐츠를 시민교육에 활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기존 정치콘텐츠, 특히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의 분석을 통해 인터넷상에서의 한국인들의 정치적 수준을 평가하고 그 문제점을 극복해서 바람직한 정치문화 형성에 기여해 나가야 한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침체되어 있는 정치콘텐츠의 활로를 모색해 인터넷 정치의 마케팅전략에도 기여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국민들간에 발생하는 정치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정치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의 정치콘텐츠의 개발이 절실하다.

정치 무관심이 확산되고 있고 간접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향후 전자민주주의 발전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전자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를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한데 현재 각종 검색순위사이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숫자는 타 부분의 사이트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진다. 따라서 각 부분별 정보격차가 콘텐츠별로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에 주목해서 현행 법제도하에서 정치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하여 정의로운 콘텐츠 모형을 개발 개선해 나감으로써 한국 정치콘텐츠의 윤리규범을 확립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기존 국회의원홈페이지의 정치콘텐츠의 분석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정치콘텐츠 개발을 통한 정치안정

화와 정치적 갈등을 수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과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정의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정의감 교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고선규, 2003, “일본 정당의 온라인화와 인터넷 선거운동”, 『국제 정치논총』, 제43집 4호.
- 김용철·윤성이, 2005, 『전자민주주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오름 .
- 김용호 박성우, 2005, 『정보화시대의 전자민주주의 거버넌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외, 2004, 『17대 총선현장리포트』, 서울: 푸른길.
- 외, 2002, 『사이버정치과정에 대한 신인도 조사』,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학술연구과제.
- 김춘식, 2000, “국회의원의 웹사이트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통권 14-1호.
- 나인섭·심연수, 2004,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에 따른 사이버 포플리즘의 극복”, 『제8차 국가발전전략 학술세미나 논문집: 유비쿼터스시대의 포플리즘과 선거』,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목진휴 외, 2006, 『양극화 현상의 원인진단과 극복방안』,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박재창·강화형, 2006, “의사소통과 국회의원 홈페이지”, 『대한정치학회보』, 12권 1호.
- 심연수, 1998, 『복지국가와 정의』, 서울: 인간사랑 .
- , 2004, “정치 사이트 비교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정치콘텐츠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9권 제2호 통권 31집.
- , 2005, “17대 총선후보자 홈페이지의 콘텐츠 분석 :네티즌의 바람직한 사이버 정치 윤리의식 함양을 지향하며”, 『국민윤리연구』, 제59호.
- 심정아, 2007, “정치인의 자기표현 형식과 전략에 관한 연구: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 양민영, 2000,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인터넷의 활용도 연구 :16대 국회의원의 홈페이지 이용을 중심으로”, 상명대 석사논문.
- 오관석·신기현, 2008, “민주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이념 및 정향에 관한 연구: 시민의식 수준과 영역체계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1집,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유병길, 2004, “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한 연구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전남대석사논문.
- 윤성이, 2002, “한국의 사이버 정치활동”, 『정책포럼』, 통권 제32호,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이원태, 2003, “직접민주주의의 광장인가, 포폴리즘의 도구인가-인터넷 정치참여, 그 가능성과 한계”, 『월간 중앙』, 29권 3호 통권 328호 .
- 이윤기, 2000,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표준 모델에 관한 연구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국민대석사논문.
- 이지은, 2003, “정치인의 인터넷 활용에 관한 연구: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 정상현, 2000, “정치여론의 공론장으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 (Cyberspace)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 정성은, 2007, “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한 연구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건국대석사논문.
- 정소나, 2006, “정치인 홈페이지에 나타난 자기표현 (self-presentation) 형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석사논문.
- 최남이·이미숙, 2001, “전자민주주의의 등장에 따른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홈페이지 내용에 대한 통계분석”, 『정보화정책』, 8-1.
- 추병완, 2003, “사이버윤리교육의 새로운 접근모색”, 『사이버커뮤

니케이션학보』, Vol.12.

David M. Anderson, Michael Cornfield ed., 2002, *The Civic Web: Online Politics and Democratic Values*. Rowman & Littlefield, Inc..

Dennis W., & Mark D., 1997, "*Cyberself: the emergence of self in inline chat*". *The Information Society*. 13.

Contents Analysis on Expressing Principles of Justice in Lawmakers' Homepages for Cultivating Citizenship

Shim, Yeon-soo
(Honam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olitical contents of lawmakers' homepages from the perspective of justice principles. I determined the frequency that three principles of justice appeared in the lawmakers' homepages through contents analysis of the lawmakers' homepages for cultivating citizenship. Lawmakers should contribute to advancing political culture in their homepage through two-way communication with citizens.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Lawmakers' homepages according to the equality oriented, average oriented, and concession oriented principles of justice.

Most lawmakers are trying to communicate with citizens in terms of the average oriented principle of justice in their homepages. Because civil society needs much more concession virtue in order to advance the democratic political development, lawmakers need to focus more on communicating concession oriented principles of justice to citizens for cultivating citizenship.

Key words : Citizenship, Homepage, Principle of Justice, Lawmakers, Equality, Average, Concession.